

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축일

시편 131(130), 1. 2. 3

(후렴) 주님,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 소 서.

1. 주님,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 나 이 다. 제 눈은 높지도 않사 옴 니 다.
2. 오히려 저는 영혼을 다독이고 달랠 나 이 다.
3. 이스 라 엘 아, 주님을 고대 하 여 라.

감히 거창한 것을 따 르 지 도,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 이 - 다.
제 영혼은 마치 젖 떤 아 - 기,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 옴 니 다.
이 제 부 터 영원 까 - 지.

알 렐 루 야

(후렴) 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

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
찬미받으 소 서.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 나 이 다.